

인도 : 정진영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84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127.사순절(4)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00장 다같이
기도	1부: 박상민 권사 2부: 최진수 집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장 11-21절 (신약 290면) 인도자

찬양 십자가로 영상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고다! 신복현 목사

결단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시선	다같이
※축도		신복현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말씀 : 천광우 목사	둔전아침묵상

【고린도후서 5장 11-21절】

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12 우리가 다시 너희
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이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광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산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둔전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방법

1. 카카오톡에서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2. 둔전교회를 검색합니다.



3.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버튼(채널추가하기)를 누릅니다.



4. 채널을 통해 둔전아침묵상과 교회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김성혜 박명원·윤영임 박심원·윤관순 박희군·이혜영 방정원 안홍욱
윤종찬·임신자 윤주영 이인임 임근실 전옥자 정영숙 정재현 주영순
최광순 최인선

◆ 감사헌금

곽삼화 김주용 남영옥 명민주 박상민 박심원·윤관순 신복현 신연호
유병희 윤종찬·임신자 정영숙 무명2

◆ 선교헌금

◆ 건축헌금

4월 봉사위원

		3월 27일	4월 3일	4월 10일	4월 17일
예배 기도	1부	박상민	안혜자	박영애	박명원
	2부	최진수	안순조	윤영임	윤종찬
	3부				
헌금위원			(3월) 1부 : 황영옥 2부 : 박정아 (4월) 1부 : 김항순 2부 : 최미연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344,000	1,305,000	3,668,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

13. 진정한 신앙의 용기

신앙고백

찬 송 :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가 269장)
기 도 : 맡은이
말 씬 : 요한복음 18장 1-27절

말씀묵상

공생애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일행은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1.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10).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제자의 용기로 보이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2.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11).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셨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27).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했던 그였지만,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용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맺는말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은 얼핏 용감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폭력을 멀리하며, 위기를 모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적용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미워하지 않기, 선행을 위해 용기내기 등)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사순절 넷째 주일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한 주이시길 소망합니다.

2.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국내미자립교회(말씀위에세운교회)를 후원합니다.

3. 말씀감사

지난 한 달 동안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신
신복현 목사(대한기독교서회 문서선교실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4. 담임목사 부임

조항철 목사께서 다음 주일(4월 3일)에 부임하십니다.
새로운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자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헌물 - 박식원장로 · 윤관순집사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이하림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